

■ 교육

대학 입학 사정관, 지원자의 SNS 를 들여다 본다

미국 명문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지원 학생들의 소셜 미디어를 검색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최근 대학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카플란 조사에서 입학사정관 중 36%가 지원자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 중 거의 70%는 소셜 미디어를 보는 것이 입학 절차에서 ‘공정한 게임’ 이라고 생각했다.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들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체크하는 것은 지원 학생들을 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당락에 영향을 준다. 소셜 미디어에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 분명히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 최근 조사는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점검한 입학사정관 중 38%가 학생에 대한 관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고, 32%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통계상 입학사정관의 약 3분의 1만이 지원자의 소셜 미디어를 보고하고 있다. Inside Higher Ed가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관계자들이 지원자의 소셜 미디어를 볼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것은 주립대학의 경우 지원 학생수가 많아서 일일이 체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수가 작은 명문 사립대학의 경우 소셜 미디어가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

주립대학의 경우 입학 사정관들이 지원자의 소셜 미디어를 들여다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완전하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깊이 들여다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가 뭐 어때서?” 라는 가벼운 생각이 대학 진학 기회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주택 용자 이야기 2

다드-프랭크 법(Dodd-Frank Act)과 도널드 트럼프

1933년에 발효된 Glass-Steagall Act는, 지난 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객들의 예금을 가지고 은행이 월가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당시 주식 투자에 손을 대었던 미국의 은행들은 월 스트리트의 갑작스런 주가 폭락으로 인해 자산가치에 하락에 따라 파산하게 되었고, 그것은 수 많은 예금주들로 하여금 예금을 찾지 못해 도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글래스 스티걸 법안은 다음의 금지 사항을 결의하고 시행했습니다.

- * 은행의 증권 인수 등 증권 관련 업무의 금지
 - * 증권회사의 은행업무 금지
 - * 은행과 증권회사의 계열 관계 금지
 - * 은행과 증권회사의 임원 겸직 금지
- 그런데, 1999년 10월에 발효된 Gramm -Leach-Bliley Act는, 기존의 Glass-Steagall Act를 폐지함으로써 서프라이즈 파동이라는 경제적 파국을 야기시켰습니다.

2008년 9월, 세계 4위의 투자 은행 (IB)이었던 ‘리먼 브러더스’ 의 파산 신청에 이어, 미국내 5대 투자은행 중 3~5위의 업체가 문을 닫고, 4위에 랭크 됐던 와코비야도 사라졌습니다. 세계 최대 보험사였던 AIG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 국유화 되면서 간신히 파산을 면했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들은 마비 상태였고, 주식 시장들도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버냉키 전 FRB 의장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13개 금융회사 가운데 12군데가 1~2주 안에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7월에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월가의 탐욕과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고객

들의 보호를 위한 ‘다드-프랭크 법안(Dodd-Frank Act)’ 에 서명합니다. 이 법안은 특히,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볼커룰’ (Volcker Rule)을 포함시켜 ‘클래스-스티걸 법’ 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

■ 다드 프랭크 법안(Dodd-Frank Act)의 내용

다드 프랭크 법안은 민주당 상원의원인 Christopher Dodd와 민주당 하원의원인 Barney Frank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전체 16장, 2300페이지의 분량의 법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볼커 룰(Volcker Rule)입니다.

볼커 룰은 전 FRB 의장이었던 Paul Volcker가 제안한 금융규제 방안으로, 소위 ‘자기자본투자’ 라고도 불리는, 트레이딩 계정 거래(Proprietary Investment)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과 은행계역의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험이 예상되는 파생상품과 같은 품목들에 자신들의 고유 자금으로 직접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은행은 안전한 은행 고유의 업무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금융회사가 트레이딩 계정 거래를 하고 싶다면 은행과의 관계를 먼저 청산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안정 감시위원회, FSOC(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의 신설입니다.

이 위원회는 여러 금융 관련 감독 기구들이 서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런 기구가 요구되었을까요? 2008년 경제위기 이전 미국 정부의 금융감독 체제는 금융 상

품에 따라 또, 각 주에 따라 이를 감독하는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와의 일원화된 협력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연방정부는 전체 시장에 대한 통제나 규제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고, 전체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 위기의 골이 깊어갈 때에도 적절한 상황의 파악은 물론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FSOC는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소비자 금융 보호국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신설입니다.

CFPB의 업무는 주로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비자 금융(대출)의 규제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CFPB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끼워팔기 한 다든지 무료 서비스를 가장하여 유료 서비스를 시행하므로 이익을 만드는 경우들에 대해 해당 회사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지시하는 등의 제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과 관련된 공약 가운데 다드-프랭크법(Dodd-Frank Act)과 함께 CFPB의 폐지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다드-프랭크 법안을 폐지할까요? 만일 이를 대치하는 법안이 새로 제정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그 내용에 따라 앞으로 주택시장과 모기지 용자 시장의 향방을 점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택용자의 종류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잔 유(G7 용자) 213-434-8669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

